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5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월 26일(수) 오전 15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5.26.(수)	담당부서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과장	김재준 과장(044-203-4220)	담 당 자	권태성 사무관(044-203-4227)

산업부, "청년 고용 창출" 위해 본격 시동 건다

- 인천 남동산단에서 문승욱 장관 주재 "청년과의 대화" 개최 -
- 청년 근로자 · 창업자 · 구직자 등과 "청년 고용 창출" 방안 논의 -

【 개요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5.26일(수) **15시**부터 **인천 남동산단**에서 ❶청년 근로자·창업자·구직자, ❷청년 고용기업, ❸청년 고용 지원기관 등이 참석하는 **"청년과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 취약한 주거 안정성, 학자금 대출 등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청년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청년과의 대화" 개요 】

- **일시 / 장소** : '21.5.26(수), 15:00 ~ 16:30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대회의실
- **회의명**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 : 청년과의 대화
- **참 석** : 산업부 문승욱 장관(주재) 외 청년 재직·구직·창업자, 기업, 유관기관 등 15여명
  (산업정책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본부장 등 배석)

【 주요내용 】

□ 행사 참가자들은 ❶기업 수요와 구직자 정보의 미스매치, ❷기업·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투자 지원부족, ❸열악한 근로 환경과 정주 여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하였다.

【 참가자 주요발언 】

- **(미스매치)** 국내외 기업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산단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아 선호도가 낮음**(석사과정 재학 청년)** ↔ 청년들이 중소기업 기피, 일자리는 투자에서 시작, 투자지원 필요 **(중소기업 경영자)**
- **(지원부족)** 재직자 대상 전문기술 교육 확대 필요**(청년 재직자, 기업 경영자)**
  제조업 현장기술 관련 학위과정 신설**(학사과정 재학 청년)**
  정부 R&D 사업의 기업 부담 완화방안 마련 필요**(기업 경영자)**
- **(정주여건)** 산단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교통불편 등이 청년의 산단기피 주 요인, 문화공간 조성 등 산단 이미지 개선 필요**(청년 재직자)**

□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디지털, 탄소중립, 글로벌 산업패권 경쟁 등 **경제 불확성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선도할 청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밝히고,

○ **❶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❷청년의 "가치" 제고, ❸청년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사업**을 **조기**에 **이행**하고,

○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업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를 **활용**하여 **업종별 청년 채용박람회, 산학연계 프로젝트 활성화 등**을 **확대**하여, **청년과 기업 간 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가치 제고

□ **디지털,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청년**이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과 **청년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년을 키우고 지킬 수 있는 환경조성

□ 제조업 산재사고 감축, 스마트 공장 확대 등에 투자하여 **청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 일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주거, 문화, 교통, 복지와 관련된 문제**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산단**의 **교통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청년 교통비 지원 지속, 통근버스·대중교통노선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계획 】

□ **문 장관**은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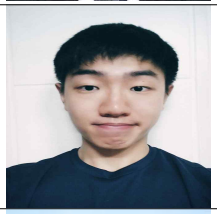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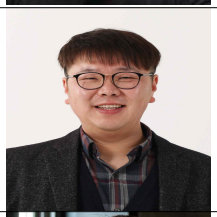
○ 금일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여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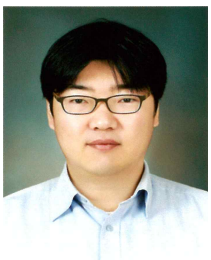
【붙 임】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2. 장관 모두발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권태성 사무관(☎ 044-203-42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간담회 참석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 직위	주요경력 / 학력
청년	청년 구직자	남성실 (27세,女)		인하대학교 학생	• 생산기술연구원 협동과정생 • ㈜다윈프릭션,항공기용마찰재 개발 프로젝트 등 참여
		홍정범 (32세,男)		인하대학교 학생	•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 ㈜현대제철, 후판 스마트설계 및 원가절감 프로젝트 등 참여
		박준연 (26세,男)		한국산업기술대 학생	•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 석사과정 •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과정 수료
		전용민 (30세,男)		한국산업기술대 학생(석사)	• 한국산업기술대 신소재공학 석사과정 •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과정 수료 • EH기반 단기기술개발과제 참여
	청년 재직자	박용준 (39세,男)		대모엔지니어링(주) 차장	• 생산기술팀 차장 • 2006년 한국산업기술대학교졸업(기계설계) • 2006년 대모엔지니어링(주) ~ 현재
	청년 창업가	공성랑 (39세,男)		㈜해나소프트 대표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 석사 • (주)해나소프트 대표이사 • 온새미로KPU 창업협동조합 부이사장
		최근식 (36세,男)		㈜링크솔루션 기획부 팀장	• 한국산업기술대 기계설계공학 학사 • (주)링크솔루션 대표이사 • 창업경력 10년 차
	산단 청년 재직자	박영철 (32세,男)		㈜알투비 팀장	• 인하대 재료공정공학 석사 • 뿌리산업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산업부) 학습형 현장문제 해결과제 우수자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 직위	주요경력 / 학력
기업	지역기업	민수홍 (47세,男)		㈜프론텍 대표	• 아이치산업대학 학사 • (주)프론텍 대표이사 • 남녀고용평등 유공 훈장 수상('16, 고용부)
	청년고용기업	이원해 (66세,男)		대모엔지니어링(주) 대표	• 숭실대 전자공학 학사 • 대모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기이사
		정택균 (48세,남)		㈜알투비 대표	• 인하대학교 책임/연구교수 • (주)알투비 대표이사
	R&D기업	안범모 (60세,남)		포인트 엔지니어링 대표	• 광운대 전자재료공학 학사 • 포인트엔지니어링 대표 • 지식재산경영인 대상('19, 지식재산위원회) • 이달의 신기술('18, 산업부 장관 표창)
지원기관	교육훈련기관	현승균 (53세,男)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교수	•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원장 • 일자리위원회 주력전통산업 분과위원(18년) • Osaka University 산업과학연구소 조교수(02년)
		한제헌 (43세,男)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교수	• Texas A&M대 기계공학 박사 • 현대기아차 연구소 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MC	백인경 (41세,女)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 국민대학교 컴퓨터응용학 학사 • 스마트모빌리티MC,모빌리티 제조혁신MC 매니저

참고2 **장관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입니다.

오늘 이 곳 남동산단에서
우리 제조업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과 기업인 여러분을 모시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 청년 일자리 중요성]

뛰어난 디지털·정보화 역량,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우리 청년은 현재와 미래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선도형 산업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입니다.

최근 디지털·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글로벌 산업패권 경쟁 심화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미래를 선도할 청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2. 청년의 아픔 공감]

그러나 우리 청년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구직난과 함께,
취약한 주거 안정성, 학자금 등 재정부담 등으로
청년의 삶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투자·소비 등 우리경제의 견고한 회복세와는 별개로
청년고용 문제가 해결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 및 한계]

정부는 지난 12월,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21년 청년 일자리 55.5만개 창출, '25년까지 청년주택 27.3만호 공급 등

그러나 그 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삶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고,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위협받는
"N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청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다시 한 번 정책을 세심히 살피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4. 정책 추진방향]

앞으로 산업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을
오든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개최하는 남동공단과 같은 스마트 그린산단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성공사례가 되어
빠른 시간 안에 전국에 전파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❶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❷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인 청년 “가치” 제고,
❸ 청년을 “키우고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❶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투자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적극 투자하여
청년들이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투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기술력 있는 해외 우수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지표 악화 속에서도
5,000명 이상의 청년 연구 인력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R&D 연계 고용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선도형 산업구조

또한, 정부는 디지털과 탄소중립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❷ 청년의 “가치” 제고

전문성·적응력 제고

청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산단에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여 청년이 일하는 곳에서
업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재직자와 학생들이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탄소중립 관련 교육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제고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의 경우
창업에서 성장까지 창업 전 과정을 정부가 함께하여
빠른 시간 안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산단의 경우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가동하지 않는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겠습니다.

3. 청년을 “키우고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장

청년이 일하고 싶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장 구축을 위한 투자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출기, 프레스 등 위험기계를 보유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R&D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산하고,
혁신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산단 내 기업들 간의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확산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청년의 일터가 아닌 청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거, 문화, 교통과 관련된 문제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특히 산단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어린이집, 영화관, 피트니스센터, 공원 등 편의시설을 충분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산단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 교통비 지원 지속, 통근버스,
대중교통노선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 마무리 발언]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 그리고 청년을 세심하게 살피며
소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청년과 관련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소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